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진국일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웃 사랑

주간 충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5 충헌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믿음으로 승리하는 10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눅 17:5)

참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마 8:34). 그의 중심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며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습니다(마 8:35). 그런데 지금 우리는 참 제자로서 살고 있습니까? 살아 왔습니까? 벌써 10월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다음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의 발자취를 돌아보십시오. 언제나 그렇듯이 넓고 편한 길을 걸어 오셨습니까?(마 7:13) 아니면 좁고 험한 믿음의 길을 걸어 오셨습니까?(마 7:14) 우리의 길은 오직 믿음의 길이어야 합니다(딤후 6:12).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마 16:24).

‘별써 10월’이기도 하지만, ‘아직 10월’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회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영광과 안일을 위해 살아 왔던 모습을 온전히 회개하고 더욱 십자가만 붙들어야 합니다(겔 18:31). 특히 이번 주 수요일(5일)에 있을 정기 당회 시 복음을 위해 헌신할 새 일꾼이 결정되며 피택 장로들의 주제발표(21일)와 임직예배(26일) 등 10월은 2006년 준비를 위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10월 28일 금요 집회 시에 있을 금년 마지막 청지기 훈련을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섰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딤후 4:7).

자원봉사의 시작은 나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빌 3:3)

우리들은 주중에 섬기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일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교구의 자원 봉사팀들이 교회의 구석에 쌓인 먼지들을 쓸어내고 닦는데 많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비록 먼지 때문에 목이 아프지만 이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밝으며 찬송의 매들리로 웃음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벧전 5:2). 또한, 토요일에는 주중에 시간을 내지 못하는 남성도들의 자원봉사로 분주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기 위한 자원봉사의 움직임에 마침표는 없습니다(엡 4:12). 주일에도 자원봉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교회를 위해 섬기는 자원봉사자들은 식당 관리, 정수기 관리, 화장실과 각 집회 장소의 쓰레기 수거 관리 등 기존의 미화담당 직원들이 하던 모든 일을 맡아 수고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벧전 4:10). 그런데 우리가 주일에 직접적인 봉사 활동은 하지 않지만, 우리들의 “협력”(롬 8:28)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일에 국수를 드실 때 음식을 쓰레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당량의 국수와 김치를 담아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수거된 쓰레기를 잘 정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갖다 놓으십시오. 특히 일부 부서에서는 아직도 음식물을 가져와 먹고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의 모습이지만 가급적 교회가 정한 방향에 순종하여 음식물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협력하여 섬기는 모습에서부터 참된 자원봉사는 시작되며 이 모든 일은 바로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행 2:46). 내가 먼저 국수를 먹고 쓰레기를 버리고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한 번만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롬 15:6). 충헌의 전성도가 성령으로 자원봉사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은총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원봉사에 관한 문의 / 자원봉사부(421), 사무국(403)

10월 교회 행사

- 5일 전도위원회 헌신예배(수요 2부예배) · 정기당회
- 21일 피택장로 주제발표(금요집회)
- 23일 제 5차 학습세례식(주일 찬양예배)
- 26일 장로 · 안수집사 · 권사 임직예배(수요 2부예배)
- 28일 제3차 청지기 훈련(금요집회)
- 30일 종교개혁 주일

수요 2부 예배 · 금요집회 시간 변경

이번 주 수요일(10월 5일)부터 적용!

저녁 7시 30분에서 7시로 변경

(기도원 금요집회 시간도 저녁 10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TAKE A LOOK AT THE FOUNDATION"

(1) Now when the people saw that Moses delayed to come down from the mountain, the people assembled about Aaron, and said to him, "Come, make us a god who will go before us; as for this Moses, the man who brought us up from the land of Egypt, we do not know what has become of him." ... (8) "They have quickly turned aside from the way which I commanded them. They have made for themselves a molten calf, and have worshiped it, and have sacrificed to it, and said, 'This is your god, O Israel, who brought you up from the land of Egypt!'" (9) And the LORD said to Moses, "I have seen this people, and behold, they are an obstinate people." (Exodus 32:1-9)

A amazing grace was upon the Israelites as God took them out of Egypt. Everyday He fed, clothed, and guided them toward the Promised Land. He called Moses to the top of Mt. Sinai to give him the commandments He wrote for their edification (Ex. 31:18). It was a sign of His love, showing His desire to teach them His ways. When we look at Israel's faith, we see some problems with their foundation. Faith encompasses both spiritual and physical matters. Its foundation depends upon human attitude. If you perceive that physical things from God, like money, fame, and health, strengthen your faith, then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your foundation.

Moses went to the top of Mt. Sinai to meet God. He was gone only forty days. His heart yearned to bring God's people His word. They had experienced firsthand God's ten different miracles in Egypt, and His miraculous wonders of separating the Red Sea, sending manna from heaven, pouring water from rocks, and presenting Himself as a pillar of cloud by day and pillar of fire by night. They heard God's call to Moses, and were frightened of His glory surrounding Mt. Sinai (Ex. 19:16-20). However, their foundation of faith quickly crumbled as they waited for Moses' return. If God makes you wait or even chooses not to give you something, does your faith fall apart? If you get sick or if the earthly things given you do not meet your requirements, how lasting is the foundation of your faith?

When Moses went up to meet God, Israel was without a leader. As time passed, the people became scared and angry, like a small child left for a time without his or her mother. Surrounded by thick clouds of God's glory, they waited for Moses, but his absence caused them to start wondering whether he might have died. Strangely, when people gather their thoughts together, they come up with some fascinating ideas. Of course, to God they are stupid ideas. When people are without a spiritual leader, their thoughts and ideas are always ungodly. They may sound good and even look good, but they are not good. Nothing good can come about without God. The Bible clearly tells us that apart from Jesus Christ no one can bear fruit (Jn. 15:5).

Israel gathered and began thinking about what was going on with Moses. They thought it best to make a new leader. Therefore, they made a calf out of gold (vv. 2-4), and decided to worship the calf and the Lord at the same time (vv. 5-6). They wanted comfort, security, and spiritual assurance. They tried to mix and match the physical and the spiritual through their own way of thinking. They

did not rely on God's direction or word. As such, they ended up trying to make holy things with unholy things, similar to today's seminaries and churches. God's ways are not our ways, so without His input, the best human thoughts and the richest human ideas are all folly.

My dear friend, please simply come back to the word of God. Wait until God leads you. He has given you Jesus Christ, the Bible, and sent you His Holy Spirit. You are completely and perfectly safe and secure. Often times human eyes do not see or human desires do not feel the presence of God. In such times, do not look for beautiful earthly things, like the Israelites and their gold, which they made into a calf. They took pride in their efforts and felt they were successful. They partied and worshipped over their temple (v. 6), which they thought was godly but in reality was sinful. They sinned against God, and their punishment was great (32:33, 35).

God looks at your foundation. He told Moses, "Go down at once, for your people, whom you brought up from the land of Egypt, have corrupted themselves. They have quickly turned aside from the way that I commanded them. They had made for themselves a molten calf, and have worshiped it and have sacrificed to it and said, 'This is your god, O Israel, who brought you up from the land of Egypt' (vv. 7-8). Israel had left God, thinking everything they were doing was okay. The Lord God said to Moses, "I have seen this people, and behold, they are an obstinate people" (v. 9). God sees your foundation. You cannot hide it from Him. You may fool me, and even your family and friends, but you cannot fool God. He is looking at your foundation.

All humans want to believe in themselves, not God. They want to make their own things, even their own God. They are selfish and sinful creatures who desire evil things. 1 Corinthians 3:10-13 says, "According to the grace of God which was given to me, like a wise master builder I laid a foundation, and another is building on it. But each man must be careful how he builds on it. For no man can lay a foundation other than the one which is laid, which is Jesus Christ. Now if any man builds on the foundation with gold, silver, precious stones, wood, hay, straw, each man's work will become evident; for the day will show it because it is to be revealed with fire, and the fire itself will test the quality of each man's work." What kind of foundation does your faith rest upon? Please build on the truth of God, pray while guided by the Spirit of God, and wait with an eternal perspective (Jude 20). Amen. 🙏

믿음의 터를 살피라

☞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터뎌를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나라 ... ☞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출 32:1-9)



김성관 목사

믿음의 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직접 쓴 계명을 주기 위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출 31:18).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도를 알려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과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 보면서 그들이 가진 믿음의 터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터는 개인의 마음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물질, 명예, 건강과 같은 육신적인 것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강해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터에 있어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자리를 비운 것은 단지 사십 일 정도였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려는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가지의 이적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은 흥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낮에는 구름가동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들은 시내산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출 19:16-20). 그러나 모세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의 믿음의 터는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거나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까요? 땅이 들거나 세상적인 것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터는 얼마나 오래 지탱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믿음의 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올라가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 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수록 그들은 얼마 없이 남겨진 어린 아이들처럼 두렵고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옥한 구름에 둘러싸인 채 하염없이 모세를 기다리던 그들은 모세가 죽었는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면 생각지도 못한 기이한 말씀들이 돌출하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나 보시기에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없을 때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선하고 그럴 듯하게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요 15:5).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서서 모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2-4절), 금송아지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5-6절).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안전, 영적인 확신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육신과 영적인 것을 적당히 섞어서 조화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나 말씀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경건치 않은 것으로 경건한 것을 만드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신학교나 교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제 아무리 탁월한 이론이나 기발한 생각이라도 어리석음을 뿐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성령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완전한 안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거나 마음속에 욕망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습니다. 그 때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세상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찾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에 대한 자부심과 성취감에 들떠서 잔치를 벌이고 제단에 경배했습니다(6절).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거룩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것은 악한 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고, 그에 따른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출 32:33,35).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터를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너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7-8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8절).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터를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목사인 지나 가족, 친구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분은 믿음의 터가 말씀에 기초해 있는지 살펴보십니다.

믿음의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주체가 되기를 원하며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자신의 생각대로 만들기 원합니다. 그들은 자신밖에 모르며 악한 것을 좋아하는 죄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3:10-13은 말합니다.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초심할찌라야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운즉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라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부디 하나님의 진리 위에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기도하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인내하십시오(요:20). 아멘

『은퇴를 앞둔 장로가 고백하는 십자가 복음』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도가...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전 1:18)

저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옥 불을 향하여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을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교회의 장로로 세우셔서 시무한 지 십일 년이 되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무기간은 살갑이 빠르게 지나가고 이제는 은퇴를 맞게 되니 뒤돌아보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의 모습뿐, 무익한 종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육신이 연약해지면서 고통으로 괴로울 때도 있지만 그 때마다 천국을 향한 믿음과 소망은 더욱 분명해 지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회개와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충현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교회가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십자가의 진리만이 선포되는 교회로 바꾸셨습니다. 더 나아가 단기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온 땅의 택하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충현교회의 온 성도들을 선교사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5대 목표를 교회 앞에 주셨으니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이라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딤후 2:2).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요 13:34). 저부터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언제나 살아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땅 끝을 향해 십자가를 전하는 충현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 하였음이라”(고전 2:2).



안중욱 (감사위원)



조망부 2팀 후기

회개의 눈물이 땀을 적시며

♥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하다.

한 생명에게라도 더 많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뛰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우리를 이 먼 땅에 선교사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들이 순순하게 예수님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가정에서 전도를 마치고 나오는 데 높은 담장에서 손짓하며 자기 집에도 와 달라고 손짓하는 손길을 보며 웃었다. 그리고 그 소년의 안내에 따라 그 가족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찬양을 하였다. 십자가 대속의 주님,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교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박대순 권사)

♥ 무능한 저를 써 주시는군요!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땀을 적시었다.

가기 전까지 두려움이 많았으나 선교지에 도착하니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너무나 나약하고 넘어지며 엎질러 뒹굴던 나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니구나!” 하는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영동한 이런 눈빛과 이슬 맺힌 할머니의 모습이 저금도 눈에 선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 어린이들과 집집마다 청년들이 모두 내려와 ‘아멘, 아멘’ 하며 복음을 받아들이니 주님은 이렇게 무능한 나를 사용하고 사랑하시는구나, 많은 핑계를 대며 말도 듣지 않는 나까지 이만큼 사랑하시고 모든 일들을 이끌어 주심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주님! 나 같은 것을 기다리는 영혼이 있었군요! 무능한 저를 써 주시는군요! 가슴에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땀을 적시었다. (김국자 권사)

♥ 우상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니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전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예수님만을 믿을 것을 전했습니다. 두 가정에서 우상을 제거해 달라고 부탁했으니 우리는 우상을 제거한 뒤 그들에게 기쁨으로 성경책을 주고 찬송과 기도를 하였습니다. (변순복 권사)

♥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대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땅은 정말 축복받은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우리의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대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고 주님께서 미약한 저희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속히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전한 복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자라서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구옥자 권사)

♥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집을 visit 할 때를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말을 붙이니 모두들 망치와 연장을 내려 놓고 와서 우리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한국에 근로자로 다녀왔거나 친척이 있는 분들을 만나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라하였습니다.

부처 사진 앞에 향을 피우는 신상을 두 집이나 철거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체험했습니다. 때를 따라 도울 손길을 적절히 붙여 주시고 그들의 문화와 환경을 직접 경험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채미자 집사)

♥ 모든 것이 우리 힘이 결코 아님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정기스칸과 부처를 모신 신당을 모두 철거했던 일은 우리 모두를 성령의 은혜로 더욱 뜨겁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를 끝낸 이들은 자신들이 기르는 양과 가족, 아픈 자를 위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때 더 강조했던 것은 이제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매일 매일 전도지를 읽으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대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힘이 결코 아님을 고백하며 매일 매일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사역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박계순 집사)

♥ 추심만을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을 확신하며 돌아왔습니다.

인생의 끝이 아닌 하늘에 소망을 두신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떠났지만 그분들이 가진 복음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젊은 사람 못지 않게 대단했습니다. 집집마다 향을 피우며 우상을 모시는 그들의 가정에 과감하게 우상을 부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이곳까지 저희들을 보내 주셨음을 알게 되니 고맙게 진정 여러 가지 잠실들이 풀려가고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을 확신하며 돌아왔습니다. (조숙진 집사)

십자가만을 전하며!

나의 앓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이번 선교에서도 어김없이 앞서 가셔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열심히 십자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다.

눈송 사역 때 휠체어에 탄 다리가 불편한 한 남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드렸더니 고맙다고 하며 큰 소리로 우는 것을 보았을 때 정말 가슴이 아왔다. 한편으로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영혼을 부탁드렸다.

어느 집을 방문했을 때 많은 가족들이 모여 있었는데 한 분이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바로 그 분의 생일이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 힘있게 복음을 전했다. 그들은 기뻐하였으며 우리를 맞으신 어머니께서는 눈을 반짝이며 들으시더니 그 그림 전도지를 하나하나 보며 10장 중 1장을 팔라고 조르셨다. 그 그림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라는 십자가에 달려신 예수님 그림이었다. 우리는 생일 선물로 주겠다고 했더니 정말 고마워했다. 그분은 생일 선물로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이다. 오래오래 간직하며 우리가 전한 복음을 이웃에게 전해 주기를 바라며 기도했다.

이 땅의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전하면 고개를 가우뚱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확신있게 자랑하며 전해야 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주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여야 것이 복음의 핵심이기에 오늘도 내일도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만을 외치며 전할 것이다.

이훈희 (권사, 4교구)

목숨을 내어놓는 선교

교회에서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 제 마음속에 "선교는 목숨을 내어놓고 가는 것인데"라며 제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일로 여겼습니다. 평소에도 전도를 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별로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제가 선교를 결심하게 된 것은 순전히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여러 가지로 편하지 못한 사정임에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로 선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선교지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여건이어서 심적으로 불안했으나 하루 하루 성교 임정이 진행되면서 선교의 기쁨과 담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꼭 노래를 불렀고, 지역 지역까지 경연을 하는 풍습까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한국에서 왔노라 말하고 찬송을 부르며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그들이 한 곡, 우리 팀이 찬양 한 곡, 이렇게 서로 번갈아 부르다가 나중에는 그들에게 찬송가를 가르쳐 주고 같이 찬양하며 큰 은혜를 받았습다. 유아원에도 방문하여 어린이들에게 찬송과 율동을 가르쳐 주었고, 그 곳 선생님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축조 전도를 할 때는 매정하게 우리를 뿌리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힘을 다해 십자가 복음을 전하였습다.

선교하는 내내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만났던 그 영혼들의 눈빛을 기억하며 그들과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안종남 (집사, 2교구)



선교를 떠나기 전 내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었다. 우리들의 준비되지 못함에 대한 불안과 그럼에도 연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더 커졌는지 아니면 나의 부족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인지 떠날 때 나의 마음은 들뜨고 기쁜 마음이 더 많았다. '우릴 어떻게 사용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까?' 선교를 여러 차례 다녔기에 교만하지 않게 해 달라고, 경험을 의지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선교길에 올랐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셨다. 처음부터 철저히 우리의 생각과 교만을 깨뜨리시며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길 원하셨다.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영혼들을 만나도록 허락하셨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전심으로 선교지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길 원하셨다.

복음을 들으면 냉담한 반응을 보이거나 형식적으로 우리를 대하며 친절함만을 베푸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신을 섬긴다고 말하는 영혼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해 주셨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해 주셨다. 진지한 눈빛으로 복음을 듣는 영혼을 보면서, 또 예수님만을 믿고 싶다고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묻던 그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가장 기억에 남는 영혼은 나를 보자마자 'I wanna be a christian!' 이라고 말했던 한 청년이다. 우리가 무엇을 전하러 다니고 있는지 멀리서 보고 눈치를 챈던 모양이다.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면서 우릴 만났다. 다른 곳으로 가려던 우리는 그 청년에게 다가갔다. 그랬더니 대뜸 한다는 말이 'I wanna be a christian!'이었다. 너무 기뻐한 나는 종교가 힌두교라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만이 진리이며 예수님만을 믿어야 함을 전했다. 복음을 들은 그 청년은 마음속 깊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 기도까지 함께 했다. 그리고 그 청년은 '할렐루야!'라고 외쳤다. '할렐루야'의 뜻을 알지 못하던 청년이었지만, 그렇게 먼저 말하는 것을 보고 내가 뜻을 알려 주었고, 우리는 함께 '할렐루야'를 외쳤다.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에 나가고, 또 성경을 보기도 약속을 하고 헤어지려는데 다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자신의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없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릴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망설임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그 청년은 자신있게 말했다. 'OK! I can tell them' 자신이 직접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겠다고는 그의 말에 우리는 정말 기뻐했다. 또한 명의 복음 증거자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우리들은 그의 부모님과 복음 전할 그를 위해 기도해 주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다.

이번 선교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철저히 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 주셨다. 하나님, 정말 멋지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송미 (대학부)

★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10월 3일(월) - 10월 8일(토)	초동부(추)	지규성	10월 4일(화) - 10월 13일(목)	1교구(추)	김진국
10월 3일(월) - 10월 11일(화)	4교구(추)	이흥우	10월 4일(화) - 10월 13일(목)	장년부(1)	권오준
10월 3일(월) - 10월 11일(화)	8교구(추)	김준홍	10월 6일(목) - 10월 15일(토)	소년부(1)	홍성욱
10월 4일(화) - 10월 12일(수)	1교구(추)	구원식	10월 6일(목) - 10월 15일(토)	4교구(추)	류기영
10월 4일(화) - 10월 13일(목)	2교구(추)	장용희			

★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9월 28일(월) - 10월 4일(화)	7교구 4지역	장길남	9월 27일(화) - 10월 6일(목)	10교구(추)	남은희
9월 28일(월) - 10월 5일(수)	12교구 8지역	이병영	9월 28일(수) - 10월 7일(목)	장년부(1)	이훈현
9월 28일(월) - 10월 5일(수)	16교구 4지역	홍현식	9월 29일(목) - 10월 8일(목)	17교구(추)	윤석민
9월 27일(화) - 10월 6일(목)	10교구(추)	김현배			

★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9월 20일(화) - 9월 30일(금)	14교구(추)	홍현희	9월 23일(금) - 10월 1일(토)	청년부(1)	최우근
9월 20일(화) - 9월 30일(금)	14교구(추)	이근호	9월 24일(토) - 10월 3일(일)	5교구(추)	김영숙
9월 21일(수) - 9월 30일(금)	1교구 8지역	김윤조			

만 음

우리의 믿음은
어려운 일 닥치면
모래성처럼
날아간다.

하지만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의 믿음은
바윗덩이처럼
단단해진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두려움이 없어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마음이 굳건해야 하고
담대해야 한다.

그러면 어려운 일이 닥쳐도
절대로 믿음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김의진(소년부)

주님의 은혜

15년 전, 집사 직분을 받고 봉사할 곳을 놓고 기도하던 중 어느 장로님의 권유로 안내위원으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육을 받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말도 잘 안 나고 표정은 굳어 있었으며, 모든 것이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었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 때 '내가 하려고 했구나. 내가 하려고 하니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제게 말할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이후로 저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님들의 한 심령 한 심령을 바라보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요.

매주 성도님들과 교제하며 예배를 위해 서로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 정말 낮아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안내하다 보면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제게 "어떻게 그렇게 완하게 웃으세요."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완하게 웃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더럽고 추하고 욕심 많은, 그래서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총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예배 안내자라는 자리에서 저를 시계 하셔서 저의 죄를 보게 하시고 저에게 낮아지는 기쁨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늘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습으로 서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김류자(집사, 6교구)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사람들이 묻습니다. "제육아, 학군단(R.O.T.C.)에 왜 지원했어?" 저는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단지, 맛있는 제육과 군복무 중과 후에 얻을 수 있는 혜택이 그 길을 선택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입단 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게 한 것이 있습니다. "학군단 기도모임 결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뜻을 알면서도 미루고 피하려 했지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제 곁에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저에게 '훈련 기간은 전도의 기회'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작은 비전은 이때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소대장으로 나아가서 소대원을 중 단 한 명이라도 주님을 영접하게 할 것이라는 소망. 나아가 전 소대원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동기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더 큰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변화시키야 할 곳은 제가 지금 속해 있는 학군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40명의 영혼을 전도의 대상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동기들을 모두 변화시킨다면, 50명 이상 되는 이 친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대장의 임무를 맡게 되어 2,000명에 달하는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 군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대장으로 나아가 그들을 변화시켰을 때 더 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직은 10명이 채 안 되는 적은 수의 기도 모임이지만, 함께 하는 동역자들과 동일한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성장"과 "학군단의 복음화"를 2005년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기에 우리들은 더 깨어 있고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것이기에 담대함과 기대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은 십자가의 은혜로 저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를 붙잡혀 여기셨기에 저 또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붙잡혀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저를 용서하셨기에 저 또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저 또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파송된 어느 특정한 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명령을 받아 파송되었기에 어느 곳에 있든지 마땅히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캠퍼스의 선배, 후배, 동기들을 품기 원합니다. 가정의 믿지 않는 영혼과 믿음이 연약한 영혼을 품기 원합니다. 제가 가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십자가를 전하길 소망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사 43:1).

이재욱(대학부)



전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딤후 1:3)는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에게 자꾸자꾸 전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성이, 성존이, 지현미를 전도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성이는 나랑 제일 친해서 전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전도하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전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좋아집니다. 그런데 지성이를 전도하기는 했지만 저는 찬양 대타 일찍 고회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성이는 고회에 일찍 와서 혼자 나를 많이 기다리고 같이 있지 못 합니다. 그래서 지성이가 성삼위야 합니다. 그러더니 지성이가 어디 간다는 핑계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창 기다렸는데 지성이가 나오지 않아 전화를 했더니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도 하고, 만일 때마다 계속 이야기하니 여름 성경학교 때부터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참 기쁩니다. 지성이가 계속 나와 다섯 주가 되어 이제 동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도 받고 더욱 열심이 다닐 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겁니다.

정용천(초등부)



교회 탐방 02 여교역자 중창단

눈물로 드리는 영혼의 찬양

여교역자들의 찬양은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가슴에 들리는 찬양은 마음의 한 연상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교역자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그 마음을 읽기 위해 그분들을 만났다.

중창단의 이름은?

여교역자 중창단입니다. (이옥주 전도사, 지도)

중창단을 만든 동기는?

교구역신 예배 때 중창을 할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정말 생 각지도 못 했는데 주님의 뜻을 따라 중창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김말자 전도사)

은혜를 끼치는 찬양을 위해 연습을 많이 하신다고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한 곡을 3개월 정도 열심히 연습합니다.

(한영준 전도사)

특별히 수·금요일 시간을 내서 맞추어 봅니다. 그 외는 개별적으로 가사도 외우고 저울도 보며 온 전이 드리는 찬양이 되도록 준비합니다. (이수경 전도사)

어떤 중창단이 되기를 기도하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중창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영준 전도사)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그야말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말자 전도사)

복음을 위해 소심한기를 원합니다. (윤인숙 전도사)

바울과 영광 드리는 중창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정연 전도사)

나를 드러내보이는 겸손이 십자가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복순 전도사)

중창단을 하면서 받은 은혜는?

마음 모아 연습하면서 중창단이 하나가 되는 기쁨을 맛봅니다. 제 각각의 소리가 모여 아름다운 한 소리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볼 때마다 놀라울 뿐입니다. (이옥주 전도사)

연대감과 지체와식을 느끼며 서로를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도사로서 늘 '하루에 하는 일'을 아다가 중창단에서 '하루의 일'을 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김말자 전도사)



중창단을 통해서 제가 저야 할 십자가를 깨닫습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의 모습이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류진희 전도사)

자기 점검, 자기 부인, 영적 충전, 영적 유식을 연습니다.

(김정연 전도사)

제가 제물이 된 기분입니다. 찬양을 드리는 순간 입술만이 아니라 몸까지도 다 제물로 드린다는 기쁨을 느낍니다.

(한영준 전도사)

그냥 부르던 찬양도 찬양을 준비하면서 계속 목상을 하게되니 더 깊은 찬양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수경 전도사)

주님이 함께하시는 순간을 소개하십니까?

피로가 누적된 가운데 찬양 연습을 시작하여 어느새 새 힘이 솟지요.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확신을 합니다. (이옥주 전도사)

정작 단 위에 섰을 때보다 연습 중에 주신 은혜가 큼니다. 십자가 찬양에 사단이 뚫겨 가는 경험을 합니다. (한영준 전도사)

가사를 외우면서 은혜를 받지요. 길을 가면서, 일을 하면서 드리는 찬송으로 인해 보혈의 강에 잠깁니다. (윤인숙 전도사)

단 위에 서기 전에 떨리지만 주님께 사로잡혀 찬양을 드린 후에 '주님이 쓰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 정말 행복합니다. (김말자 전도사)

찬양하려고 서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찬양하려고?' 하시며 저를 바라보시는 눈길에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류진희 전도사)

가나하고 닮아진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져 감사가 목이 멍니다.

(김정연 전도사)

가사를 통해서 나를 돌아볼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생각나 저절로 눈물이 납니다.

(이복순 전도사)

교역자 이전에 보혈의 은총을 입은 자녀들! 이들의 모습은 "은혜" 그 자체였다. 말씀의 통해 십자가를 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교역자의 모습에서 양육의 열매를 깨뜨려 단 마리아의 모습(마 26:7)이 떠오른다.

(편진실)

다음주일 찬송

541장
저 요단강 건너편에

1898년 캐리 브록(Carrie E. Brock, 1855~1934)여사가 작시하고, 그랜트 콜팩스 툴라(Grant Cofax Tullar, 1869~1950)가 같은 해 작곡해서 툴라 목사의 부흥성회에서 불려지기 시작했다. 원래 제목은 "주의 얼굴 비오리"(Face to face with Christ, my Saviour)로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그 날을 사모하며 부름 찬송이다.

1절은 계시록 22장 3,4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 있다. 우리가 주의 앞에 있을 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비치시기 때문이라"(계 22:5) 이런 영광의 나라를 생각할 때 이 세상의 부귀는 아무것도 아님을 말한다.

후렴은 찬송의 요약으로 찬자의 소망을 읊은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돕기 위해 천국의 위치를 별빛이 찬란한 하늘 훨씬 저 편이라고 말하며, 그곳은 해 같이 빛나는 주의 영광의 얼굴을 마치 같이 곧 뵈게 된다는 것이다. 이 소망을 마음에 간직하고 세상을 산다면 세상의 부귀 영화가 무색할 것이다.

2절은 주님께서 내게 부락하신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친 후에 예비하신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함을 전한다.

3절은 영원한 천국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할렐루야 찬양을 부를 때 나 자신 역시 주님의 은혜를 통해 서기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며 영광스러운 보좌를 향한 찬양을 부를 것임을 말한다.

4절은 이 놀라운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저 요단강 건너 편에 있기에 우리는 일생 동안 주님의 일을 힘써 하려 하며 육신의 정욕을 벗고 천국에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게 될 찬양 찬한다.

저 요단강 건너 편이 먼 곳이 아니다. 찬송가는 그 길을 하룻길이라고 말한다. 영원한 천국에 한 사람도 낙오되는 성도가 없기를 바라며 이 놀라운 은혜의 찬양을 날마다 부르며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자.

(찬인위원회)

새·가·족·을·환·영·하·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685	윤영진	12	장년2부	이호성(16)	2700	맹병미	19	외선부	변인석(6)
2686	김정현	14	청년2부		2701	원돈	19	외선부	
2687	강기원	1	장년1부	이병근(4)	2702	이정아	2	장년3부	김형기(2)
2688	김요한	1	장년1부	이병근(4)	2703	김영근	6	장년2부	이진규(4)
2689	김아람	19	대학부	김인수(8)	2704	황 이	19	외선부	박성준(19)
2690	송수	19	대학부	신영삼(16)	2705	최훈희	6	청년1부	
2691	유철순	14	장년2부	정창철(13)	2706	정연자	6	장년2부	
2692	김미영	19	청년1부		2707	최희정	6	청년1부	
2693	김은영	6	청년1부	김말자(6)	2708	최희순	11	장년1부	최윤재(17)
2694	배재홍	11	장년3부	김정희(1)	2709	조경진	19	대학부	이하늘(19)
2695	김두태	15	청년2부	윤효남(2)	2710	정말영	19	청년1부	박대준(6)
2696	윤은숙	9	장년2부	윤화석(17)	2711	백정현	19	대학부	장욱재(4)
2697	이진우	9	장년2부	윤화석(17)	2712	조문정	19	청년1부	하민성(17)
2698	김진숙	3	장년2부	서영미(2)	2713	여의하	13	청년2부	한성일(1)
2699	김영순	10	장년2부	이계원(7)	2714	강옥순	2	장년2부	황영미(2)

※ 송신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카드 오시기 바랍니다.※

